

전라감영 복원공사 본궤도 올라

전주시, 실시설계 완료
1단계 공사 84억원 투입
2019년 12월 준공 목표

전주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의 핵심공간이 될 전라감영 복원공사가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선화당 등 전라감영 복원 건물의 실시설계와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왔다. 1단계 복원공사는 총사업비 84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9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선화당과 내아, 내아행랑, 관종각, 연신당 등 전라감영 핵심건물 7동이 복원될 예정이다.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위원들은 전라감영 복원의 시점을 19세기로 정하고, 전라감영 공간의 변화에 따른 각 건물별 위치와 시대에 따라 변화는 건물의 형태, 현존하는 타감영 건물과의 비교 등을 통해 복원될 전라감영 건물의 뼈대를 완성했다. 시는 향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를 통해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통일신라시대부터 일제강점기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흔적을 어떻게 조성해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복원될 건물 활용의 구체적인 방향과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논의해 복원·재창조될 전라감영을 박제된 공간이 아닌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라감영 복원 건물의 실시설계 안에 대해 실무위원회 및 고건축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논의를 거쳐 왔다. 또, 구도심사 건물 철거 이후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구의 흔적과 각종 고지도 및 문헌의 기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한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원형을 찾는 작업에 주력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라감영 복원공사는 전주의 문화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실확인 논의 과정을 거쳐왔

다"라며 "앞으로 전라감영 복원 공사의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현장공개 및 답사 등을 진행하는 등 역사와 정신을 오롯이 살리는 복원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라감영 복원 공사와 별개로 전라감영의 자료를 모으기 위해 전라감영과 관련된 지방통치행정 유물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라감영의 공간과 최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라감영 일원은 조선시대 감영을 주제로 콘텐츠 체험 공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며, 전라감영과 관련된 실물 유물도 확보돼 관광객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는 오는 28~29일 이틀간 송천동 인라인 롤러경기장과 전주종합경기장 등 전주시 일원에서 '2017 전주월드인라인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세계 최정상 인라인 선수 전주 집결

28~29일 이틀간 마라톤대회
선수·동호인 등 4000명 참가

세계 최정상의 기량을 갖춘 국내·외 인라인 선수들과 동호인들이 전주에 몰려온다. 전주시는 오는 28~29일 이틀간 송천동 인라인 롤러경기장과 전주종합경기장 등 전주시 일원에서 '2017 전주월드인라인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인라인 종목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인라인 대회로, 트랙경기와 마라톤대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마라톤대회에는 국내·외 국가대표 선수와 동호인 등 4,000여명이 참가한다. 42km (동호인 및 엘리트), 21km (청년부, 장년부, 단체부), 6km (초등부경쟁, 비경쟁) 종목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는 오

는 13일까지 전주시를리스포츠연맹 사무국 홈페이지(www.jinline.org) 또는 전화(063-273-1105)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42km와 21km 3만원, 6km는 2만원이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인라인 꿈나무 육성과 저변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해마다 타지에서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은 "이번 대회가 인라인 발전에 공헌하고 전주가 국제스포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지속적인 협조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라톤대회가 진행되는 29일에는 경기가 진행되는 전주종합경기장과 성모병원, 전주월드경기장 구간 도로가 부분 통제된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차량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송하진 도지사 '전북산하 200리 걷기' 대장정 성료

섬진강·용담호·군산 등
나흘간 체험행보 마무리
"보람찬 시간이었다" 소감

송하진 도지사가 열흘간 이어지는 을 추석 장기 연휴기간동안(주말과 휴일 포함) 계획했던 '전북산하 200리 길 따라 걷기'를 마무리했다. 송하진 지사는 8일 전북산하 200리 길 따라 걷기 마지막 네번째 일정한 군산 구불길과 고군산군도(신시도~선유도) 일대를 걷고 살펴보는 시간을 끝으로 연휴기간 계획했던 4일차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전북 자존감 체험과 충전의 여정으로 계획, 일상적인 도정 현안과 업무에서 벗어나 직접 전북의 산과 강, 바다를 느끼고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하고 시행에 옮긴 행보를 예정대로 모두 마무리한 것이다. 전북 산하의 멋과 아름다움을 돌아보고, 도정현안과 연관된 현장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석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30일(토) 아침 일찍 신정일 우리 땅 걷기 이사장의 길잡이 안내로 전주 걷지산 길 탐방과 내년에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전주의 역사와 찬란했던 옛 기상, 자존감을 되짚어보는 일정을 시작으로 2일(임실 섬진강변 진메마을(김용택시인)~천담마을~구담



송하진 도지사가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장기 연휴기간동안 '전북산하 200리 길 따라 걷기'를 나선 가운데 지난 8일 마지막 행선지로 군산 고군산군도를 찾은 수시탐포럼과 송죽회 회원들과 함께 신시도와 선유도까지 있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전북산하 200리 길 따라 걷기를 마무리 하고 있다.

마을~순창 장구목), 6일 진안 고원길(용담호), 8일 군산 구불길과 고군산군도 일대까지 모두 나흘간의 전북산하 체험 행보가 이어졌다. 송 지사는 "전라북도내 내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앞두고, 다양한 기념사업과 도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에 계획했던 전북산하 길 따라 걷기를 하면서 우리 전북의 수려한 멋과 기상을 새롭게 발견하고, 미래에는 가장 빼어난 자연생태 여행지이자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 지사는 "전주 건지산에서는 단풍숲길의 안온하고 평화로움을, 임실 진메~전담~구담~순창 장구목에 이르는 풍수지리적 빼어난 아름다움, 생명의 영적기상이 느껴지는 진안 고원길, 신시도~무녀도~선유도 고군산군도에서는 근엄한 역사성이 느껴지는 미래 최고의 해양관광지 비경을 온몸으로 느끼는 참으로 보람찬 시간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특히 "전북 자존의 시대를 도민들과 함께 이뤄가고자 하는

뜻을 갖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각계 전문가들과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이번 산하 틀, 강과 바다로 이어지는 전북산하 200리 길 따라 걷기 체험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된 행보"라고 설명했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은 더 많은 훌륭한 자연생태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간을 갖고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시·군지역으로도 전북산하 따라 걷기 행보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종이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확대

시간·경제적 절감 효과

전주시가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 시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종이계약을 대신하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제도다. 전자계약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온라인을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로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수고를 덜

게 된다. 특히,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전자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 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 생략,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전자계약서는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 거래도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이 없는 만큼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